



“조력자 역할 못다한 아쉬움” 레전드 이미선의 거취 고민

임근배 감독 “선수 의견 반영할 것”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가 6일 막을 내렸다. 플레이오프(PO) 진출에 실패한 3개 구단 삼성생명, 신한은행, KDB생명 선수들의 올 시즌도 끝났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다음 시즌 더 나은 경기를 펼치기 위한 마음을 다잡고, 기량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오프시즌’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젊은 선수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선수생활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노장 선수들에게 내일을 꿈꾸는 것은 사치다. 당장의 생존에 대해 고민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좋은 마무리’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여자프로농구의 ‘레전드’ 이미선(37·삼성생명)은 은퇴 기로에 서 있다. 1998년 삼성생명에 입단한 그녀는 전성기를 지냈지만, 경기를 아우르는 리딩 능력과 정확한 패스로는 여전히 리그 정상급 기량을 자랑한다.

그러나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다. 삼성생명은 임근배(49) 감독 부임 이후 세대교체에 나섰다. 이미선은 팀의 정책에 따라 올 시즌 조력자 역할을 했다. 출전시간도 데뷔 이후 가장 짧은 평균 19분3초에 그쳤다.

이미선은 “2년 전부터 은퇴를 고민했다. 올 시즌에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팀 상황에 따라 내가 준비했던 100%를 보여줄 수 없게 됐다. 시즌 초반에는 농구가 재미없더라. ‘이번에는 진짜 그만뒀어야 할까’ 고민했다. 감독님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다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아직까지도 고민이다.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임 감독은 이미선의 은퇴에 대해 “선수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선수로서 더 이상 이를 것이 없는 이미선이 미련을 두는 것은 ‘아쉬움’ 때문이다. 이미선은 “다음 시즌에도 내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조력자의 역할을 올 시즌에 해줬기 때문에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가진 100%의 노력을 쏟아붓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제임스 28점…클리블랜드, 보스턴 제압

미국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가 6일(한국시간) 퀸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5~2016시즌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보스턴을 120-103으로 눌렀다. 클리블랜드의 간판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28점·11리바운드·8어시스트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제임스는 통산 2만6378점을 기록하면서 샌안토니오 스프링스(2만6366점)를 제치고 통산 득점 14위로 올라섰다.

한국알파인 간판 정동현, FIS 극동컵 1위

한국알파인스키의 간판 정동현(28·하이원)이 6일 일본 시카고겐 스키장에서 열린 2016 국제스키연맹(FIS) 극동컵 회전 종목에서 1·2차시기 합계 1분43초73로 1위에 올랐다. 극동컵은 FIS가 주관하는 대회로, 월드컵 다음 가는 수준의 대회다. 2위는 오코시 류노스케(1분44초19), 3위는 고노고스케(1분44초62·이상 일본)가 차지했다.

“추 감독 부담될 것” “유 감독 내려올 때”

〈모비스 유재학 감독〉

〈오리온 추일승 감독〉

유재학-추일승 감독 4강PO 미디어데이

유감독 “추 감독 항상 연구하는 지도자”
추감독 “어떤 지도자보다 뛰어난 리더”

모비스 유재학 감독과 오리온 추일승 감독은 실업농구 기자동차 창단 멤버로 53세 동갑내기다. 유 감독과 추 감독은 지도자로 변신해 오랜 기간 라이벌구도를 형성했다. 플레이오프(PO)에서 격돌하는 것은 2006~2007시즌 이후 9년만이다. 8일부터 시작하는 ‘2015~2016 KCC 프로농구’ 4강 PO(5전3승제)에서 맞붙는 두 감독은 6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입씨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행사 말미에는 서로를 칭찬하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했다.

● ‘취’ 유재학 VS ‘쇼’ 추일승

유 감독이 흥미로운 얘기를 꺼냈다. 선수 시절 자신의 별명이 ‘취’였고, 추 감독의 별명이 ‘쇼’였다고 소개했다. 그런 뒤 “취와 쇼가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겠느냐”고 농을 던졌다. 그러자 행사장에는 웃음이 번졌다. 미디어데이가 끝난 뒤 한 농구 관계자는 “유 감독의 인터뷰를 듣고 ‘십이지’ 이야기가 생각났다. 취가 쇼 등에 올라 경주에서 일등을 하지 않았다. 진짜 별명이 취와 쇼였는지 모르겠지만, ‘십이지’ 이야기를 빗대어 한 말이라면 추 감독이 크게 한방 먹은 셈”이라고 말했다.

● ‘부담될 것!’ (유) VS ‘식상하다!’ (추)

추 감독은 1일 4강 PO 진출을 확정된 직후 “유 감독이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는 말로 선제공격을 했다. 추 감독은 이날도 “한국농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오리온 추일승 감독(오른쪽)이 6일 KBL센터에서 열린 ‘2015~2016 KCC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모비스 유재학 감독의 농담에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언제까지 유 감독이나, 식상하다. 시침자도 체념을 돌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감독은 “내가 내려올 때가 된 것도 맞다. 반드시 (추 감독이) 올라가라”고 친구를 보며 말했다. 유 감독은 “그렇게 얘기해서 (추 감독이) 마음의 부담이 엄청날 것이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 서로를 인정한 두 감독

잠시 농담이 섞인 낯선 대화도 이어갔지만, 두 감독은 ‘지도자로 서로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서 진지함을 보였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유 감독은 “추 감독은 kt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를 잘 파악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지도자”라고 칭찬했다. 추 감독도 “팀 장악력, 철저한 준비 등으로

한국농구를 끌어가고 있다. 이번 시즌에도 6강을 가니 못하니 하더니 결국 2위로 4강 PO에 올랐다. 지도력이 어떤 지도자보다 뛰어나다”고 친구를 치켜세웠다. 유 감독은 “우리는 말수가 없어서 그렇지 많이 친하다”며 낯선 공방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에밋 경험을 믿는다” VS “에밋 수비, 오세근이 먼저 시작”

〈추승균 감독〉

〈김승기 감독〉

KCC-KGC 양감독의 1차전 전략

‘2015~2016 KCC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KCC-KGC전은 ‘에밋 전쟁’으로 불린다. KCC 전력 중 5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외국인 선수 안드레 에밋(34·191cm) 때문이다. 두 팀의 1차전은 7일 전주체육관에서 열린다. 에밋은 올 시즌 외국인선수 중 가장 화려한 공격력을 뽐내며 KCC의 정규리그 우승에 앞장섰다. KCC는 에밋 활용의 극대화를, KGC는 에밋 봉쇄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꾀하고 있다. 6일 4강 PO 미디어데이에 서 KCC 추승균(42) 감독과 KCC 김승기

(44) 감독은 구상의 일부를 공개했다.

● 추승균 감독 “에밋, 수비대처법 몸으로 익혔다!”

추 감독은 에밋의 경험을 믿는다. 그는 “정규리그를 소화하며 상대의 더블팀, 트리플팀 수비까지 경험했다. 선수 본인이 많이 적응했다. KGC와의 6차례 맞대결을 통해 에밋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며 “정규리그 때 공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4강 PO를 준비하면서도 공격 패턴을 많이 안 바꿨다”고 밝혔다. KCC는 정규리그에서 에밋의 1대1 공격보다는 하승진(31)과의 2대2 플레이를 많이 시도했고, 큰

재미를 봤다. 하승진도 “에밋과의 2대2 공격 방법을 많이 연구했고, 정규리그 막판 그 완성도가 꽤 올라왔다”고 자신했다. 에밋은 개인기를 활용한 공격뿐 아니라 3점 슛 등 위곽수도 좋다. 추 감독은 에밋이 4강 PO에서도 자신의 뒤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승기 감독 “에밋 수비, 오세근이 먼저 시작!”

김 감독은 에밋 수비에 대한 질문에 짧게 답했다. 그는 “에밋 수비는 오세근이 먼저 시작 한다”고만 밝혔다. 가드 에밋을 파워 포워드 오세근에게 맡긴다니 언뜻 보면 이

해하기 힘들지만, 숨은 뜻이 있다. 오세근은 국내파 빅맨 중 위곽수비를 잘하는 선수로 꼽힌다. 오세근에게 1차 수비를 맡기고, 풀리던 도움수비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오세근이 시작한다”고 표현한 이유다. 이는 오리온이 정규리그 6라운드 KCC전에서 활용해 효과를 본 수비방법과 유사하다. 오리온은 센터 장재석에게 에밋을 맡기고, 도움수비를 펼쳐 대등한 싸움을 했다. KGC는 또 지역방어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KGC는 삼성과의 6강 PO에서도 간혹 지역방어를 펼쳐 공격하는 상대 선수들을 헛갈리게 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봤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하승진 “자유투, PO 승부처는 자신”

백보드 텅기는 자유투, 리그성공률 53.2%
역대PO 성공률 47.8%…올해 올릴지 관심

KCC 하승진(31·221cm)의 자유투는 KBL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관심이 뜨겁다. 그는 볼을 강하게 던져 백보드를 텅기는 방식으로 자유투를 시도한다. 많은 농구팬이 하승진의 자유투를 주의 깊게 지켜본다. 특히 KCC의 연고지 전주에서 더 그렇다. 하승진이 자유투를 성공시키면 엄청난 환호성이 터진다. 6일 열린 4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미디어데이에서도 하승진의 자유투에 대한 질문은 빠지지 않았다.

하승진은 “(자유투) 특별훈련은 정규리그 때부터 항상 하고 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부각을 많이 시켜주셔서 애로사항은 좀 있다”며 “듣는 사람은 웃기겠지만, 승부처에선 (자유투를 성공시킬) 자신 있다. PO 무대는 항상 승부처다. 자신 있다”고 강조하며 웃었다.

하승진은 2015~2016시즌 정규리그에선 자유투 성공률이 53.2%(시도 154회·성공 82회)를 기록했다. 정규리그에서 가장 높은 자유투 성공률은 2014~2015시즌의 56.5%(시도 170회·성공 96회)였다. 그러나 하승진의 자유투가 점차 좋아지고 있었던 것



하승진(왼쪽)이 6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2015~2016 KCC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KCC 추승균 감독.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만큼은 사실이다. 2008~2009시즌 정규리그에서 45%에 머물렀던 자유투 성공률이 매 시즌 조금씩 상승했다. 올 시즌에는 다소 하락했지만, 지난달 9일 LG전에선 6개를 던져 모두 꽂아 넣어 100%의 성공률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긴장감이 남다른 PO 무대에선 어떨까. 하승진은 역대 PO 경기에서 자유투 성공률 47.8%(시도 205회·성공 96회)를

기록 중이다. KCC가 챔피언에 등극한 2008~2009시즌 PO에서도 자유투 성공률은 썩 좋지 않았다. 정규리그(45%)보다는 좋아졌지만 4강 PO에서 51.9%, 챔피언 결정전에서 47.5%였다.

하승진이 자신의 말대로 이번 PO 무대 승부처에서 자유투 성공률을 높여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KCC를 챔피언 결정전으로도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하다. 최용석 기자

KB스타즈 8연승 ‘유종의 미’ KEB하나 잡고 정규리그 마무리

KB스타즈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KB스타즈는 6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KEB하나은행을 61-51로 꺾었다. KB스타즈는 8연승을 신고하며 정규리그를 19승 16패(3위)로 마쳤다. 8연승은 KB스타즈 구단 최다연승 타이 기록이다. KEB하나은행은 20승15패(2위)로 정규리그를 마감했다.

KB스타즈와 KEB하나은행은 10일부터 시작하는 플레이오프(PO·3전2승제)에서 맞붙는다. 이 때문에 이날 경기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라는 의미보다 ‘PO 전초전’의 성격이 짙었다.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의 순위가 바뀔 일도 없었다. 무리하게 경기를 뛰어 부상 위험을 안고 갈 필요는 없었지만, PO를 앞두고 기세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의 경기력은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PO를 앞둔 탐색전에서 승자는 KB스타즈였다.

KB스타즈에선 주포 강아정(15점·6리바운드)이 3점슛 3개를 포함해 15점을 올렸고, 심성영이 16점·3리바운드·3어시스트, 나태사 하위드가 16점·7리바운드로 뒤를 받쳤다. 벤치 멤버들이 주축이 돼 경기를 치른 KEB하나은행은 23개의 실책을 쏟아내며 KB스타즈에 무릎을 꿇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